

<페미니즘은 처음입니다만:
중고등학생을 위한 성 평등 아카데미>
정책 제안 보고서

제출 일자: 2018.06.18

과목명: 용산구 지역정치 프로젝트

담당 교수님: 김연숙

조 이름: 용송이즈

조원: 강보인, 공현정, 송주경, 이해란

■ 목 차 ■

I. 서론	3
II. 현 용산구 정보 파악 및 1차 모델링	
1. 용산구 내의 성인지 예산 사업현황	4
2. 법령 및 국내 가이드 라인	4
3. 구 내 사업 수혜대상 파악	7
4. 1차 모델링	9
III. 프로그램 모델링을 위한 조사	
1. 용산구청 공무원 면담	10
2. 현직 고등학교 교사 심층면접	11
3. 중·고등학생 성인지 인식 조사	14
IV. 프로그램 최종 모델링	23
V. 결론	25
* 참고문헌	
* 참고자료	

I. 서론

2016년 5월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이후로 성 차별과 여성 혐오 문제가 공론화 되었다. 최근에도 사회 각기 계층의 미투 운동과 몰카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해화역 시위와 같이 젠더 관련 이슈는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민들은 사회 통합을 위한 성 평등 인식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올바른 페미니즘, 성 평등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페미니즘의 궁극적 목표는 양성평등이다. 성 평등 교육은 이전과는 다른 젠더 관계와 질서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육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 정치를 활용하고자 한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 도입이 용이하다.¹ 더불어 지방자치의 이념은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시민의 이익과 요구에 민감한 정책 수행으로 민주주의와 시민자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² 용산구는 서울특별시라는 단위보다 구민과 더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로서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민감히 반응할 수 있다. 따라서 용산구는 관내 유일한 대학교이자 ‘여자’대학교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숙명여대와 협력하여 성 평등 교육 발전에서 참여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사업은 <페미니즘은 처음입니다만: 중고등학생 성 평등 아카데미>로, 총 4일에 걸친 아카데미를 통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속 성차별 상황을 제시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또래 학생들 간 성별을 바꿔 관습적 성 역할을 수행하는 체험활동과, 페미니즘, 상호이해와 교류를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사업 수혜대상은 관내 20명 내외의 중·고등학생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수업 안에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숙명여대 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한다.

본 사업은 성평등 교육 의무시간할당량제로 진행되는 교내 교육에서 느끼던 학생들의 갈증과 불만족을 해소할 것이며, 현장조사에서 파악한 학생들의 수요를 고려해 수업내용을 구성했기 때문에 큰 기대효과와 높은 만족도를 성취할 것이다. 따라서, 본 팀 용송이즈는 <페미니즘은 처음입니다만: 중고등학생 성 평등 아카데미> 사업을 제시하는 바이다.

II. 현 용산구 정보 파악

1. 용산구 내의 성인지 사업 예산 현황

용산구는 2018년 예산 기준 재정 공시에서 일반 회계 기준 3525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나 재정부운용 계획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성인지 예산인데, 이는 양성평등 관점에서 예산을 점검 및 편성하는 것으로서 올해 관련 사업은 47건, 예산액은 19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용산구에서 발표한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분야 별 규모는 총계 약 190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도인 2017년에 편성됐던 약 186억

¹ 강원택, 『지방정치의 이해 1권』, 박영사, 2006, p.25.

² 강원택, 위의 책, p.108.

원보다 약 1.72% 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 중 성인지 교육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그리 많지 않아 보였다. 용산구청 내에서 성인지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인재양성과다. 2018년 성인지 예산안 기준 인재양성과에 할당된 성인지 예산액은 4억 3천 6백만 원이며, 이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 개수는 5개다. 그러나 이마저도 원어민 외국어 교실 운영, 학교 폭력 예방 사업,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및 학습동아리 지원, 구민 아카데미 운영, 독서문화진흥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어 성평등 교육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로지 성평등 교육만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찾기 어려웠다.

2. 법령 및 국내 가이드 라인

가. 기존 국내 성평등 교육 관련 법령

1) 양성평등기본법(법률 15206호)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성인지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18 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 성인지 교육 : 소속 공무원 대상

제36조(양성평등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정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 31 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 제 36 조 양성평등 교육
- > 제 45 조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2) 교육기본법

- > 제 17 조의 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제3장 교육의 진흥 <개정 2007.12.21.>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4항에 따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 자격·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 제 17 조의 4(건전한 성의식 함양)

3)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제2조(기능)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8.2.13.>

1. 남녀평등교육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남녀평등교육증진을 위한 교육과정·교수방법·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남녀평등교육의식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에 관한 사항
5. 진로·직업 관련 남녀평등의식 고취 및 남녀평등 고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적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나. 기존 국내 양성평등 교육 가이드라인³

- 1) 양성평등 교육관련 교육과정 내용(2009 개정 교육과정, 2013년부터 적용)

³ 정해숙, 마경희, 최윤정, 「초·중등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 중학교는 사회과를 비롯해 도덕, 기술가정, 체육 보건 등 보다 많은 교과 교육과정에 양성 평등 관련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관련 교육내용이 심화되거나 확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체육 “올바른 성 지식과 성 역할” 이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의 예방방법은 올바른 성역할이나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 등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교육이 될 수 있다. 실제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교과서 분석결과 성폭력 예방방법에 대한 교육내용이 성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 관련 교육내용을 보면 양성평등과 관련한 교육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교육내용이 매우 지엽적이라는 한계를 보인다. 보건의 경우 성과 건강이라는 단어에서 이 문제를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이중적 성규범등 성차별적 사회문화와 맞물려있는 성폭력, 성매매, 성상품화 문제를 단순히 현황과 대처방법을 알리는 수준으로 다루는 한계를 보인다.

다. 해외사례⁴

3. 구 내 사업 수혜 대상 파악

가. 용산구 남녀 인구 성비

2018년 2월 용산구에서 발표한 연령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용산구 시민들의 남녀 성비는 다음과 같다. 단위는 여자 100명당 남자 수이다.

연 령		용산구		
		인 구 수	구성비	성비
합 계	계	229,770	100.00	93.76
	남	111,186	100.00	
	여	118,584	100.00	

<표1 - 서울시 남녀 인구 성비, 서울 통계 정보 시스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 통계 정보 시스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남녀 성비가 여성 100명 당 95.64명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위 자료로 미루어 보았을 때, 현재 용산구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며, 뿐만 아니라 서울시 평균 남녀 성비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으로써 여성이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정도가 서울의 그것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용산이 다른 도시들보다 더 여성이 살기 좋은 환경을 이룩해야 한다는 목표 의식을 도출했다. 나아가 이를 위해서 성 평등 의식 제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⁴ 해외의 성평등 교육사례는 주로 진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본 프로젝트에 참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참고자료로 제시합니다.

있었다.

2017년 용산구에서 발표한 제 31회 용산통계연보를 통해 용산구 내 청소년 인구 현황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인구 구성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용산구 내 중·고등학교 현황과 중학생 인구, 고등학생 인구, 총 청소년 인구 통계를 살펴보았다.

나. 용산구 내 중·고등학교 현황

중학교: 배문중, 보성여중, 선린중, 성심여중, 신광여중, 오산중, 용강중, 용산중, 한강중 이상 공립 4개교, 사립 5개교, **총 9개교**

고등학교: 배문고, 보성여고, 서울디지털고, 선린인터넷고, 성심여고, 신광여고, 오산고, 용산고, 용산공고, 중경고, 서울자동차고 이상 공립 4개교, 사립 7개교, **총 11개교**

용산구 내 중·고등학교 현재 공립 8개교, 사립 12개교, **총 20개교**

1) 중학생 인구

			학생 수		
년	학교 수	학급 수	계	남	여
2016	9	177	4,270	2,202	2,068

<표2 - 용산구 내 중학생 인구, 2017 제 31회 용산통계연보, 단위: 명>

2) 고등학생 인구

① 일반 고등학교

			학생 수		
년	학교 수	학급 수	계	남	여
2016	6	163	4,842	3,037	1,805

<표3 - 용산구 내 일반고등학교 학생 인구, 2017 제 31회 용산통계연보, 단위: 명>

②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수		
년	학교 수	학급 수	계	남	여
2016	3	87	2,198	1,834	364

<표4 - 용산구 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인구, 2017 제 31회 용산통계연보, 단위: 명>

③ 자율 고등학교

			학생 수		
년	학교 수	학급 수	계	남	여
2016	1	24	435	171	264

<표5 - 용산구 내 자율고등학교 학생 인구, 2017 제 31회 용산통계연보, 단위: 명>

④ 총 중·고등학생 인구

			학생 수		
년	학교 수	학급 수	계	남	여
2016	19	451	11,745	7,244	4,501

<표6 - 용산구 내 총 중·고등학교 학생 인구, 2017 제 31회 용산통계연보, 단위: 명>

위의 통계 결과를 통해 우리는 현재 용산구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남녀 성비가 남성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음을 확인했다. 현재 용산구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남성 7,244명, 여성 4,501 명으로 용산구 인구 평균 성비인 93.76을 훨씬 뛰어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틀어 적은 여자 학교의 수, 남녀 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공학의 남녀 학생 구성 등의 원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를 통해 여성이 더 살기 좋은 도시 용산을 이룩하기 위한 성 평등 교육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청소년 남학생들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성을 느꼈다. 따라서 사업 수혜대상을 여학생에서 남학생들도 포함해 범위를 확대했다.

4. 1차 모델링 <페미니즘은 처음입니다만>

중·고등학생을 위한 성평등 아카데미	
대상	용산구 내 중·고등학생 20명
기간	2019년 하계방학(7~8월 중), 주 1회씩 총 4회
운영 시간	10:00~17:00
장소	숙명여자대학교 순현관 강의실
내용	1일: OT(개회식, 아이스브레이킹(멘토-멘티), 여성학이란?(강연)
	2일: 젠더와 섹슈얼리티(강연), 개념 이해를 위한 레크레이션
	3일: 사회 속의 여성1(연애, 가족, 일)(강연), 토론

	4일: 사회 속의 여성2 (정치) (강연) 서프러제트 시청, 활동(미디어의 재구성), 폐회식 (봉사확인서 발급)
사업비	용산구 내 성인지 사업 예산의 10% 내외

III. 프로그램 모델링을 위한 조사활동

1. 용산구청 공무원 면담

본 면담은 성평등을 주장했던 정부의 기조에 따라 지방정치도 실현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의 파악과, 용산구에서 시행하는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실제적 정보를 얻기 위해 진행했다.

용산구청 공무원 면담 질문지

1. 2018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중 인재양성과에 할당된 예산안이 436백만원인데 그 중 교육관련 사업이 있는가
2. 위의 사업(교육분야)에 할당된 예산안은 얼마인가
3. 전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결과 및 성과가 나타난 보고서가 있는가
4. 용산구 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공식적인 홍보가 가능한가
5. 용산구 내 중고등학교의 선생님들과 연결해줄 수 있는가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 11조(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성차별 개선 등) ① 구청장은 가정, 학교, 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가
7. 용산구 여름방학 창의과학 캠프(2013년), 용산구 인문계 고교연합 공교육 특화 프로그램(2013년) 등 과거에 이루어진 관련 정책의 시행 결과(신청자 수, 예산, 학생 및 자체적인 피드백)를 알 수 있는 사업 실적이나 보고서가 있는가

여성가족과 윤경숙 여성정책팀장, 인재양성과 김은경 주무관의 답변

(앞의 번호는 질문지의 번호와 일치하지 않음)

1. 현재 성인지 교육의 문제점: 용산구 구내 성인지 교육 예산 200만원이 서울자동차고등학교 (그것도 학력 인정 교육기관)에만 한해서 실시되고 있음.
2. 모든 관내 학교에다 성교육 공문을 보냈는데 서울자동차고등학교에서만 연락이 왔다고 함. 이를 보아 성평등 교육이 진행될 시 학생들의 수요 문제가 걱정된다는 담당자 분들의 의견이 있었음.
3. 구청에서 학교에 전화 상으로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의사가 있는지 여쭙어 볼 수 있다고 함.
4. 숙명여대-고등학교 멘토링 사업은 용산구청의 장학사업팀에서 진행중임.

2. 중·고등학교 선생님 심층면접

현재 중고등학교 내에서 진행중인 성평등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성평등 인식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다. 따라서 실제로 학교에서 성평등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과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성평등 교육의 할당시간, 방법, 내용 등 자세한 현황과 학생들의 반응 및 양성평등 인지 수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1) 조사 방법

(1) 심층면접 대상

- 용산구 관내 중고등학교 5곳의 성평등 교육 관련 선생님

학교명	학교 구분	심층면접 대상자	날짜
A	남자고등학교	교내 보건선생님	5/16(수)
B	여자고등학교	사회과 선생님	5/25(금)
C	남녀공학 고등학교	교내 보건선생님	5/15(화)
D	남녀공학 중학교	교내 보건선생님	5/11(금)
E	남자중학교	교내 보건선생님	5/11(금)

* 모든 학교는 용산구 내 중고등학교이다.

* A, B, C는 면담으로 D, E는 유선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 심층면접 대상 선정 과정

용산구 관내 중고등학교는 총 20개교로 모든 학교에 효율적으로 연락하기 위해 용산구청 인재양성과 주문관님께 총 연락처를 받았다. 각 학교마다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가 달라 팀원들이 직접 교내 교무부장 선생님, 보건지도 선생님, 생활지도 선생님 등 성평등 교육에 관련된 분들과 유선으로 먼저 연락하여 인터뷰를 요청했다. 20개교 중 심층면접에 응한 학교는 3개교(15%), 거절한 학교는 7개교(35%)로 그 중 유선으로 간단히 질의응답만 한 학교는 2개교였다. 나머지 10개교는 성평등 교육 담당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재중이었다.

(2) 심층면접 방법

- 3개교: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선생님 대면 면담
- 2개교: 전화로 간단히 질의응답

(3) 비교

- 용산구 내 중고등학생 선생님 인터뷰 질문지 (참고자료)
- 심층면접 질문은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성평등 교육 현황과 학생들의 호응도 및 인식 수준에 대해 물어보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2) 조사 결과

(1) 교내 성평등 교육의 문제점

① 체계적인 교육방침이 존재하지 않고 학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 성평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교육부에서는 1년에 15시간 성교육과 3시간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했다. 심층면접을 한 모든 학교에서는 양성평등을 성교육 시간에 1~2시간정도 포함시켜 가르치고 있었다. 의무적으로 할당된 성평등 교육 시간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대형 강의를 듣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성평등 교육에 편성된 예산은 모두 강사 초청비에 쓰였다.

성교육에 포함되어 단시간에 배우는 내용과 강사 초빙 강연 외에 양성평등에 대한 정형화되고 규격화된 교육 방침은 없었다. 이에 학교마다 성평등 교육의 질적인 부분이나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처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3개교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가 거절했는데 그 이유는 성평등 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양성평등 교육 자체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B와 C에서는 현재 교내에서 진행중인 성평등 교육만으로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더 나아가 의무적으로 할당된 성교육까지도 취약한 점이 있었다. 성교육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시간을 채우기 위해 과학시간에 배우는 세포분열, 사회시간에 다루는 인종차별 등을 포함시키는 곳도 있었다.

② 성평등 교육 담당선생님과 과목이 명확하지 않다.

- A는 정규 교과과정에 보인 수업이 없고, 보건실 주관으로 1년에 한 시간 양성평등 교육을 한다.
- B의 경우 양성평등/성교육 담당 선생님이 따로 없다. 일반 교과 수업에서 교사의 교육관과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성평등 교육이 진행된다. 예를 들어 역사시간에 한국과 세계의 여성사 및 여성 권리 운동과 해방 등에 관한 내용을 배우거나 사회문화 시간에 여성을 사회적 소수자로 다루는 수업을 하는 방식이다.
- C의 경우 1학년은 보건시간에 2,3학년은 진로시간에 양성평등 교육을 포함해 진행한다. 담당선생님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 체계적인 교육은 어렵다고 한다.
- 인터뷰 요청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성평등 교육 담당자가 존재하지 않아 인터뷰에 적합한 선생님이 없는 학교가 많았다. 대부분의 학교가 성교육을 담당하시는 보건선생님과 연결되었다.

③ 구체적인 교육 자료가 부족하다.

- C에서는 양성평등 교육 시 교재가 따로 없어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이 직접 학생건강센터 사이트나 교육청에 올라오는 자료를 찾아보고 그것을 활용한다.
- D의 경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성평등 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을 참고하거나 강사님을 초빙한다.
- E의 경우 양성평등 관련 인쇄물이나 교재가 없고, 사람마다 성평등에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 추상적이어서 가르치기 힘들다고 한다.

(2) 학생들의 성평등 인식 현황

① 양성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은 지니고 있지만 문제 해결능력이 부족하다.

B에서는 자율동아리를 운영해 직접 양성평등에 대해 서로 공유하거나 관련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있다. 성차별을 직접 느끼거나 SNS에서 접하는 내용을 통해 학생들의 성평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자기 문제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문제 해결에 대해 감정적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② 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성평등은 남녀가 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A의 경우 보건 과목이 없고 남자고등학교인 만큼 여성에 대해 무지한 학생이 많다. 인터넷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접하고 여성의 임신 확률, 배란 주기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실제로 여자친구가 임신한 것 같다고 상담을 요청한 학생도 있었다.

(3) 기타 의견 및 전문가 조언

- A: 교내 강연 등 이론적으로 학생들이 접할 기회는 자주 있다. 하지만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체험 위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궁금해하고 인지해야 하는 부분을 교육하면 좋겠다.
- B: 실제로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다.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이 그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한다. 특정 학교와 연합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학교 입장에서든 학생들을 참가시키는데 편리하다.

비정규 교육 과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취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교내 자율동아리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세미나를 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방과후학교를 개설해 강의 및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다문화 교육이 방과후학교로 진행되고 있다.



▲ 직접 학교를 방문해 선생님들과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III 프로그램 모델링을 위한 현장조사

3. 중·고등학생 성인지 인식 조사

1) 조사 방법

-조사 방법: 네이버 폼 (온라인 조사)

-응답기간: 2018.05.18 (금) ~ 2018.06.01(금) 총 2주

-응답자 수: 192명

-설문 조사를 배포한 학교: 염광중학교, 선일여자중학교, 선일여자고등학교,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배문고등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성심여자고등학교, 한민고등학교, 서울문화고등학교, 상산고등학교, 서울과학고, 계성고등학교, 신광여고, 성심여고, 염광고등학교, 선린인터넷고, 선린고등학교, (총 19개교)

-한계: 넓은 조사 범위로 용산구 전체 학생의 대표성을 모두 담보할 수 없음

-특이사항: 중고등학생의 성인지는 지역격차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오프라인으로 고등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할 현실적 한계에 부딪힌다는 위기를 해결하고자 네이버 폼으로 192명의 중·고등학생에게 성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 방법은 용산구 학교 전체의 대표성을 완벽하게 확보할 수 없으나 방법상의 한계로 부득이하게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린인고에서 실시했던 보건선생님과의 인터뷰에서 **“중·고등학생들의 성인지(性認知)는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조언에 따라 한계점이 보완될 것이라 판단하는 바이다.

또한 중복응답을 피하기 위하여 기기 IP당 1회의 응답만을 하도록 설정했으며, 이는 문화상품권 제공용도의 핸드폰번호/카카오톡ID(응답선택항목) 으로도 방지할 수 있었다. 또한 주관식과 서술형 질문에 양질의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로 문화상품권 5천원권 4매를 제공하도록 했다.

2) 설문지 설계방식

1번파트: (응답필수항목) 응답자의 성별과 학년의 개인 정보.

2번파트: (응답필수항목) 사회의 성평등 정도에 대한 개인별 인식 수준 -Likert 5점척도활용

3번파트: (응답필수항목, 선택항목 혼용) 페미니즘의 인지 정도

4번파트: (응답필수항목, 선택항목 혼용) 교내 성평등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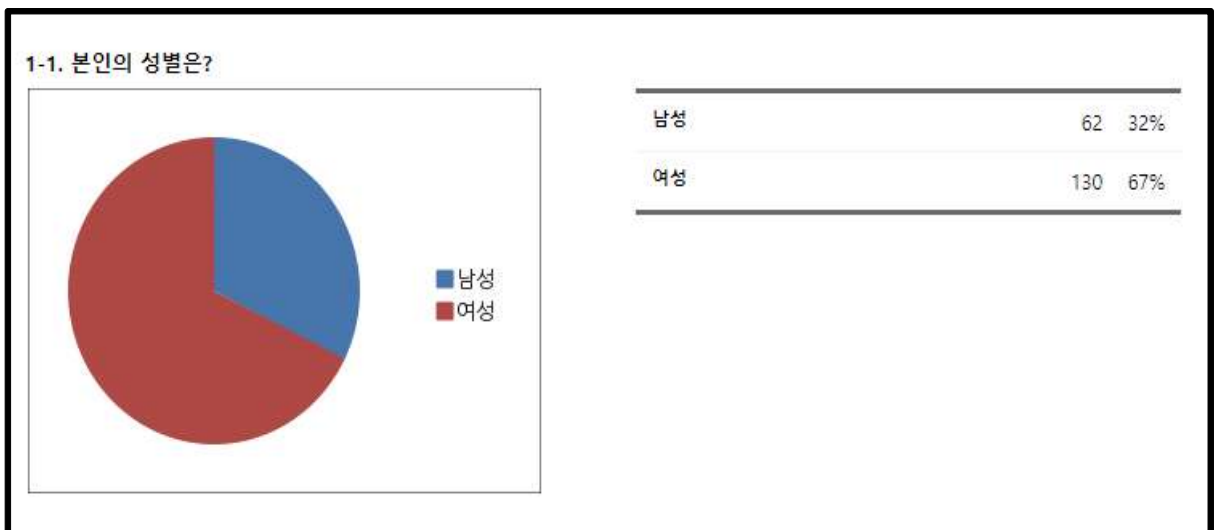
5번파트: (응답필수항목, 선택항목 혼용) 성평등 교육 프로젝트의 실현 시 참여의사

6번파트: (응답선택항목) 성 차별 경험에 대한 기술

7번파트: (응답필수항목) 사회 성차별 통념에 대한 개인별 인식 정도 -Likert 5점척도활용⁵

3) 항목 분석

(1) 응답자의 성별과 학년의 개인 정보.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총 13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7%를 차지한다. 이로 봤을 때 본 표본 조사가 남학생의 의사를 대표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성별로 극단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본 분석을 진행하면서 필요할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성별에 대한 응답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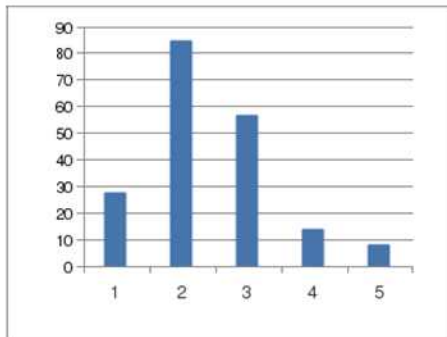
⁵ -이후 6번 파트(성 차별 경험에 대한 기술)와 7번 파트(사회적 성차별 통념에 대한 개인별 인식 정도)의 응답은 부가적 데이터이며, 6번 파트는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중학생은 총 21명, 고등학생은 171명으로 고등학생의 응답 수가 압도적으로 높다. 설문지 배포가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 더 많이 뿌려진 점이 한계로 작용하나, 이는 본 프로젝트의 잠재적 대상이었던 고등학생의 응답을 더 집중적으로 모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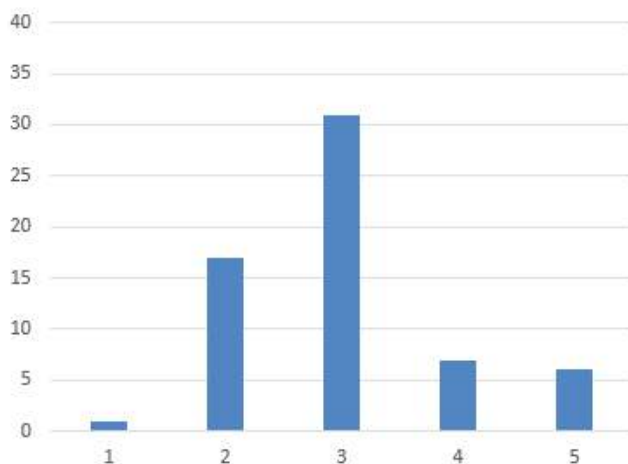
(2) 사회의 성평등 정도에 대한 개인별 인식 수준

2. 현재 대한민국은 성평등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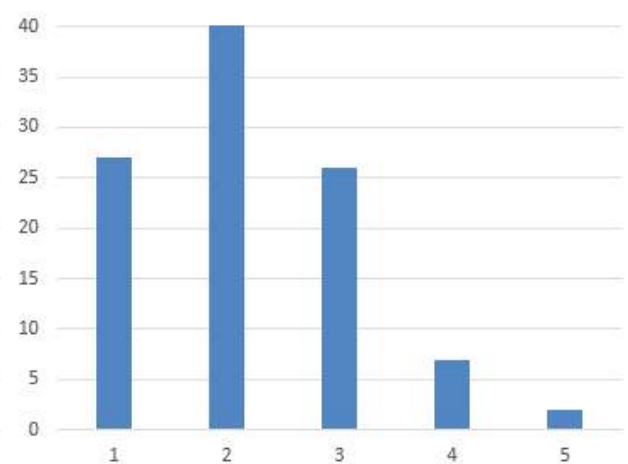


1	28	14%
2	85	44%
3	57	29%
4	14	7%
5	8	4%

남학생 성평등 사회 인식 정도



여학생 성평등 사회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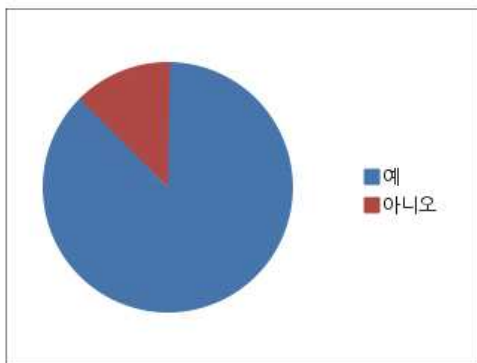


매우 그렇지 않다~그렇다로 1~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다. (2) 그렇지 않다가 44%p, (3) 보통이다가 29%p를 차지하며, 왼쪽으로 통계가 쏠린다는 점에서 비롯할 때 설문 응답자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성평등 정도는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성별간 차이가 다소 드러났으므로 성별에 따라 결과를 각각 제시한다.

두 성별 모두 왼쪽으로 쏠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1)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남학생은 사회가 성평등적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내리는 편이나, 여학생은 긍정적인 평가는 매우 소수며,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응답이 많았다. 이처럼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남·여학생들간의 사회적 성 인식이 일치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며, 교육이라는 사회적 장치가 없다면 후에 갈등을 빚어낼 수 있는 잠재적 요소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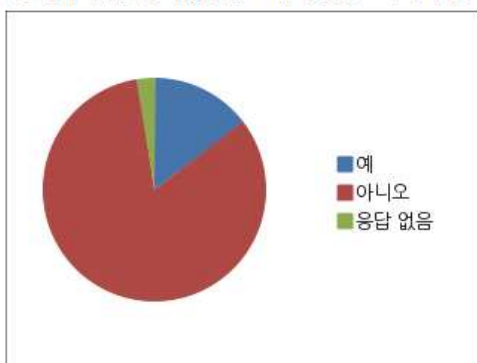
(3) 페미니즘의 인지 정도

3. 페미니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168	87%
아니오	24	12%

3-1 페미니즘을 들어봤다면, 교내 성평등 교육에서 들으셨습니까?



예	28	14%
아니오	159	82%
응답 없음	5	2%

현재 대한민국의 성평등과 케를 같이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인지정도다. 페미니즘에 들어본 응답자가 168명으로 87%p를 차지하는 점을 보아 페미니즘에 대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응답자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지문은 페미니즘 정보의 획득 경로가

교내 성평등 교육인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며, 아니오가 159명, 82%p를 차지한다. 따라서 응답자의 대부분은 페미니즘을 인식하고 있으나, 공교육이 아닌 경로에서 각자 정보를 획득했으므로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은 획득 경로에 따라 심한 개인차로 정의와 파악 정도가 달라진다고 파악할 여지가 있다.

(4) 교내 성평등 교육

4)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112명, 58%p), 아니오(80명, 41%)의 응답이 나왔다. 연간 15시간의 성교육이 의무로 진행되는 가운데 41%p의 응답자나 받아본 적이 없다고 나온 것은 교내 성교육이 응답자들에게 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4-1) 성평등교육이 자신의 성에 미친 영향은 어떻습니까?는 4번에서 성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자에 한해서만 이루어졌으나 의도한 바와 다르게 아니오를 선택한 응답자도 응답했다. 그 결과 긍정적이다(40명)와 별 생각 없다(33명)가 주를 이뤘다. 그에 비해 응답없음은 114명(59%p)로 본 4-1의 응답 결과를 합당한 지표로 삼기에는 어렵다.

4-2) 본인이 경험한 성평등 교육이 자신의 성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왜 이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항목, 응답 일부 발췌)

-4-1문항에서 부정적을 선택한 학생들만 응답했으나 아닌 응답자들도 기술했다.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각 의견들의 대표적인 응답 4개를 발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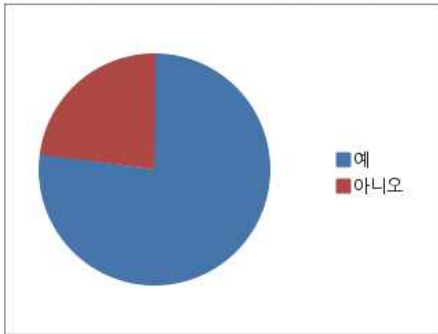
- 본인의 성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의미 없게 느껴졌다.
-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는것인데 강요하는 느낌이 강하고 짧은 성교육시간에 이론(이러한 이론 중에서도 이상한 이야기나 성교육과 상관이 없거나 일부의 내용을 부풀려서 말하거나 섹×자세또는 남성이 좋아하는 ○○ 또는 여성이 좋아하는 ○○과 같은 쓸데 없는 내용, 거부감이드는 내용으로 진행해서 수업을 듣기보다는 스스로 자습하는 경우가 많았음
- 사회는 생각보다 더욱 불평등한 사회인데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성평등에 대한 교육의 깊이는 같았고 전문강사가 아닌 사람들이 교육하는 경우도 많고 전문강사중에서도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다
- 너무 당연한 사실(여자, 남자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만을 교육하고 있고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성평등에 대한 내용도 그에 따라 발전해야 되는데 몇 년째 똑같은 내용만을 반복하다 보니 오히려 지루하고 학생들의 관심이 떨어져 교육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 같다.

(5) 성평등 교육 프로젝트 실현 시 참여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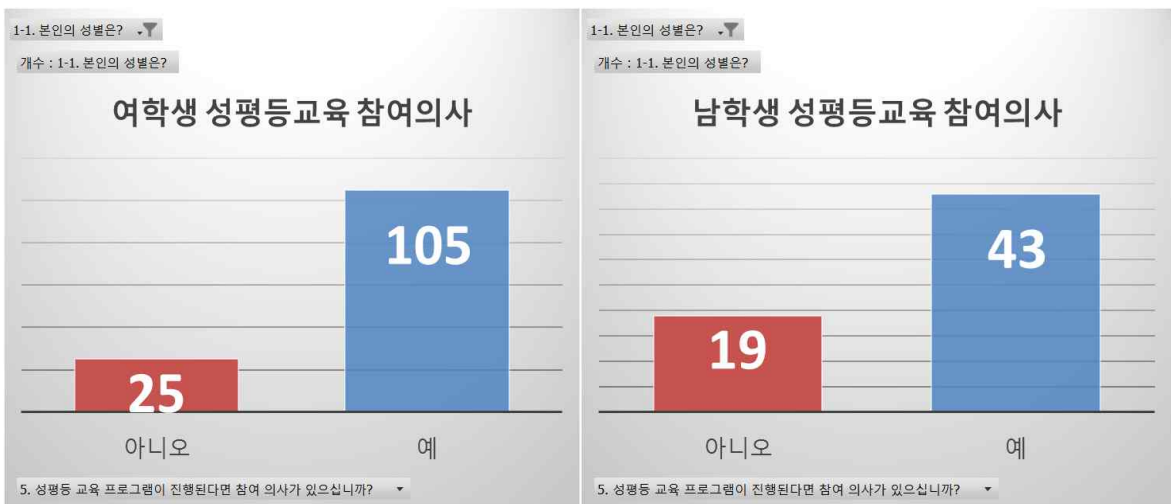
5.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 관련 질문

다음은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5.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참여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148	77%
아니오	44	22%



본 팀 용송이즈에서는 “페미니즘” 교육을 목표로 하는 만큼 성평등 교육에 대한 참여 의사를 응답자들에게 물었다. 전체적으로 148명의 응답자(77%p)가 참여의사를 밝혔고, 성별로도 구분한 결과 여학생과 남학생 응답자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응답자 중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참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 여학생 응답자들이 성평등 교육에 대해 더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5-1-1) 성평등 교육에 왜 참여하고 싶습니까? (응답 일부 발췌)

- 꾸준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국내 외 성차별 문제에 대해 나는 어떤방식으로 접근을 해야하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하는지 잘 몰라서
- 성평등에 대해 내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성평등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수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 고등학생의 신분에서 성에대해 자신과 다른 성과 이야기해볼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보다 다른 성과 터놓고 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
- SNS를 하다보면 페미니스트니 페미니즘이니 엄청 많이 보이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SNS를 통해 페미니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우고 싶다.
- 솔직히 현재 성평등 관련 이슈가 많은 가운데 자세한 개념적인 부분과 알고있는것이 많지 않은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성평등에 대해서 요즘들어 더더욱 심각한 추세이므로 필요합니다
- 최근 들어서야 많은 사람들이 성평등,페미니즘에 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성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듣고 싶고 더 나아가 성평등을 더 알리고 싶다

(3) 페미니즘 인지 정도에서 3-1에서 지적했던 현상이 5-1-1문항의 응답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의 페미니즘 획득 경로를 주로 인터넷, SNS로 얻고 있으며 다양한 시각에 따라 혼란을 겪는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사회에서 성평등 이슈가 큰 흐름인 만큼 이에 따라 교내의 성평등 교육 필요가 절실한 바이다.

5-1-2) 성평등 교육에서 무얼 배우고 싶습니까? (응답 일부 발췌)

-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성차별과 그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현재 개선하고 있는 활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한다
- 성평등이 지켜지기 위한 행동.생각과 일상생활 중 볼 수 있는 차별적 행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 생활에서 성평등에 어긋나는 모습들을 당하거나 봤을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싶다.
- 잘 알지 못하였던 성차별 단어와 과거에 사람들이 당했던 성차별, 그리고 우리가 성차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싶다 .
- 여성과 남성에 관한 정책또는 사례를 비교해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안
- 개념 위주의 수업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통해 성평등 사회를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듣고 싶음.

응답의 대부분은 실생활 속에서 성차별과 이에 대한 대처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교과서 중심의 성평등 교육 내용이 아닌 사회를 살아가는 한 구성원으로서 일상에서 접하는 성차별 문제와 극복·해결방안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한 응답자 수가 많았다.

5-2-1) 성평등 교육에 왜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응답 일부 발췌)

-고3이라 지금은 공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하는것 이외에 따로 참여 해야할 시간이 없어서

성평등 교육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학업에 집중해야하므로 시간이 없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현장 조사를 통해 성평등 교육에 필요한 세 주체의 한계점과 애로사항을 정리했다.

세 단위 각각의 한계



IV. 프로그램 최종 모델링

1. 사업 분야: 교육

2. 추진 부서: 인재양성과 (미정)

3. 추진 방향

- 1) 중고등학생들에게 성 평등 교육을 함으로써 바람직한 민주시민 양성에 기여
- 2) 중고등학생들에게 실생활과 밀접한 성 교육 기회 제공
- 3) 재능나눔을 통한 대학생들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4. 사업개요

- 1) 관련 근거: 교육기본법 제 17조의 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 2) 사업 기간: 2019년~
- 3) 사업 예산: 용산구 내 성인지 사업 예산의 10% 내외
- 4) 사업 내용

-중고등학생 대상 초청 강사의 전반적인 성 평등 교육
 -숙명여대 학생들과 중고등학생이 함께하는 토론 활동
 -방학기간 단기 아카데미 형식으로, 참여한 중고등학생들에게 봉사 시간 부여

5. 세부추진계획

여름방학 성 평등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페미니즘은 처음입니다만

중고등학생을 위한 성 평등 아카데미

- 기간 2019년 8월, 주 1회, 총 4회
- 내용 성 교육과 성 평등 강연, 토론 활동, UCC 제작
- 대상 관내 중고등학생 20명 내외
- 장소 숙명여자대학교 캠퍼스
- 참가비 없음
- 일정

1일차	2일차
OT 성 인식 테스트 사회적 성 인식 교육 성 평등의 교육의 필요성	성 교육 피임 교육 성 상담소
3일차	4일차
사회 속의 여성과 남성1 사회 속의 여성과 남성2 토론 활동	미디어 속 성 차별 토론 활동 미니 UCC 제작 폐회식

미래도시 용산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1) 추진 기간: 2019년 (시범 운영)
- 2) 참여 대상
 - 멘토: 용산구 지역정치 프로젝트의 용송이즈 4명
 - 멘티: 관내 중고등학생 20명 내외
- 3) 장소: 숙명여자대학교 강의실, 순현관 중강당 등
- 4) 운영 내용: 성 교육과 성 평등 강연, 토론 활동, UCC 제작
- 5) 운영 기간: 2019. 8월, 주 1회, 총 4회, 10시~17시

위는 성 평등 아카데미의 포스터이다. 이 포스터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부착할 계획이다. 더불어 용산구청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게재하여 온오프라인 모두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1일차의 OT에서는 개회식을

하고 멘토, 멘티 배정 시간을 가질 것이다. 숙명여대 학생 1명당 5명의 중고등학생을 담당하여 4개의 조로 나눌 것이다. 그리고 간단히 게임을 진행하여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성 인식 테스트는 남녀의 성별을 바꿔서 활동하는 시간이다.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성 고정관념대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성, 즉 젠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사회적 성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연결 지어 풀어나갈 것이다. 1일차를 마무리하며 ‘왜 우리는 성 평등을 지향해야 하나’의 주제로 성 평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연할 예정이다.

다음 2일차에서는 기본적인 성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앞서 본론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중고등학생 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 평등 교육 이전에 여성과 남성의 자연적인 성에 대해 바로 아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2일차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먼저 학생들은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해 배운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피임 교육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익명의 성 상담소 활동을 할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성 관련 고민 및 궁금증을 익명으로 쪽지에 적어내고 강사님과 숙명여대 학생들이 직접 상담을 해주며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시간이다.

3일차는 젠더 권력과 관련하여 사회 속의 여성과 남성에 대한 강연이 이루어진다. 첫번째로 연애를 주제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뤄볼 것이다. 두번째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로, 여성의 독박 육아와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모든 강연이 끝난 후에 학생들은 토론 활동을 한다. ‘육아 휴직, 엄마가 더 길게? 아빠가 더 길게?’라는 주제로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4일차는 미디어 속 성 차별이라는 주제 하에서 활동할 것이다. 최근 1인 미디어 시장의 발전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가 성 관념을 형성하는 데에 기성 미디어 못지 않은 영향력을 가진다. 따라서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 속에서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그려지는지와 그에 대한 문제점을 토론했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미니 UCC를 제작할 것이다. 드라마와 영화 속 성 차별적 요소를 재구성하는 시간으로 분량은 30초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조별로 제작한 UCC를 감상한 후 폐회식을 진행할 것이다. 폐회식에서 4일동안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확인인증서를 발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V. 결론

이 정책의 목적은 중고등학생 성 평등 교육을 통한 시민 의식 성장과 용산구 소재의 유일한 대학교, 숙명여대라는 사회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용산구의 인구 통계 자료, 성인지 예산안, 우리나라의 기존 양성 평등 교육법 그리고 해외 사례를 통하여 관내 중고등학생 성 평등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용산구청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성 평등 아카데미 진행 시 학생들의 수요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내 5개교의 성 평등 교육 담당 선생님과 심층 면접과 중고등학교 2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심층 면접을 통해서 각각 교내의 성 평등 교육의 문제점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실용적인 성 평등 교육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1차 정책 모델링을 수정하였다.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페미니즘, 성 평등에 관한 솔직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실제 참여하는 중고등학생이 원하는 성 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성 평등 교육 정책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 즉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성 평등 아카데미’는 남녀의 성에 대한 기본 개념과 성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강연이 포함되지만 토론, 역할극, UCC 제작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들의 흥미가 유지되도록 세부 일정을 기획하였다. 아카데미 참여 후 발급되는 봉사확인인증서는 중고등학생의 수요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의 연속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두 가지의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첫번째,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지방정부는 심의민주주의를 통해 중앙정부가 가지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해나가는 데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현대에 들어 시민들은 능동적인 참여 욕구를

가지며 사회적 학습의 성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⁶ 이와 같은 심의민주주의 실천을 목표로 숙명여대 용송이즈 학생들은 해당 정책을 기획하였고 지방 정치 활성화시켰다. 또한 용산구의 역량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현재 용산구 보다 상위 기관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도 성 평등 교육 관련 추진 부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성 평등 교육 자체가 분산, 운영된다.⁷ 이러한 점에서 해당 사업은 풀뿌리 기관인 용산구부터 성 평등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며 상위 기관과 상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로, 미래도시 용산에 걸맞는 올바른 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한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시민의식의 성숙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방 차원의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⁸ 지방 단위부터 성 평등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로부터 형성된 성 고정관념 때문에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변화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협조하며 공존할 수 있는 민주적인 태도 형성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⁹ 따라서 해당 정책은 용산구의 미래인 중고등학생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이끌 것이다.

⁶ 강원택, 『지방정치의 이해 1권』, 박영사, 2006, pp.18-25.

⁷ 조자경, 「평등스쿨 운영방안 연구-서울시 성평등교육을 중심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17, p.126.

⁸ 강원택, 『지방정치의 이해 1권』, 박영사, 2006, p.25.

⁹ 배은주, 이송자, 「가정과에 적용한 양성평등 수업이 고등학생의 남녀평등의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05, p.4.

■참고문헌■

I. 서론

-강원택, 『지방정치의 이해 1권』, 박영사, 2006.

II. 현 용산구 정보 파악 및 1차 모델링

-정해숙, 마경희, 최윤정, 「초·중등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V. 결론

-강원택, 『지방정치의 이해 1권』, 박영사, 2006.

-배은주, 이송자, 「가정과에 적용한 양성평등 수업이 고등학생의 남녀평등의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05.

-조자경, 「평등스쿨 운영방안 연구-서울시 성평등교육을 중심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17.

**** 참고자료 1**

<OECD각국의 양성평등 교육 예시>

(1) 일본

- 가정과 교육의 남녀공수
- 초*중등학교에서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실시
- 남녀 평등관에 입각한 교과영 도서 선정 배려

(2) 미국

- 교과서 및 교재의 성 정형성에 관한 지역교육청의 검토
- WEEA의 재정지원을 통한 성평등 실행을 위한 교육과정 자료집 발간
- 정규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교육과 교육과정 내용
- Play time is Science 프로그램 (유치원 프로그램이나 여학생을 포함, 또한 교사와 부모들까지. 이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과학적 지식을 알아야한다는 것을 일러주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협동 중시 프로그램.)
- 수학과 과학에서의 성차와 성차제거를 위한 WEEA(남녀교육평등법)의 권고
- 체육활동에 대한 WEEA의 권고

(3) 영국

-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의 성차별 배제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
- 국가교육과정의 적용
- 교과과정정책-학교심의회와 성차별문제

(4) 호주

- 성차별적 교과 과정 운영개선
- 성 평등 원리에 기초한 교육과정, 교수와 학습

- 직업/노동교육의 확충
- 성별 인식형성에 관한 검토
- 성별 인식형성과정에 대한 이해
- 남학생의 문해와 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 과학 및 공학분야로의 여성의 참여 촉진

(5) 핀란드

- 교육목표로서의 성 주류화 정책
- 물리 특별과정 개설 프로젝트
- 2002 수학과 자연과학에서의 핀란드 기술 프로젝트
- 교육과정의 설계 및 평가단계에서 성 주류화 점검
- 성평등 관련 미디어 비평교육

** 참고자료 2

<용산구 내 중고등학교 선생님 인터뷰 질문지>

숙명여자대학교 용산구 지역정치 프로젝트

용송이즈(강보인, 송주경, 공현정, 이혜란)

1. 성 평등 교육이 일년에 몇 번 이루어지나요?
2. 교내 예산 중 성 평등 교육에 편성된 예산이 있나요?
3. 의무적으로 할당된 성 평등 교육 시간을 학교 측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나요? (예를 들어, 성 평등 교육, 설문, 영상 시청, 특강 등 방법론적인 부분)
4. 학교 내에서 하는 성 평등 교육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인가요? (성폭력 예방 등 구체적인 키워드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수업을 듣는 친구들의 참여율과 호응은 어느 정도 되나요?
6. 학생들의 성 평등 인식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7.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성차별적인 언어 및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8. 성 평등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학생들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 참고자료 3

<중·고등학생 성인지 인식 조사 : 성 차별 경험에 대한 기술>

*분량 관계로 일부 발췌합니다.

A (여, 19) “여자애가 방꼴이 이게 뭐니 여자애면 좀 조신하게 행동해야지 여자애가 보기 안 좋게 팔자로 걸으면 어떡하니” 등등 많은 발언을 들었고 할머니 댁에서 단지 여자애라는 이유로 “기집년이 설거지 하나 안 한다, 기집년이 보기 안 좋게 누워있는 꼴이 저게 뭐냐.” 등 자기들이 원하는 여성 이미지의 틀에 날 가뒀다.

B (여, 19) 전 남자친구에게 여자는 담배피면 나중에 임신 못 할수도 있고 기형아 낳을 수도 있데 라는 말을 듣고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야 라고 했더니 말을 돌리며 아무튼담배피는 여자는 만나면 안되는데 너는 안피지???라는 차별성발언을 듣고 너무 어이없었다.

C (남, 18) 지하철에서 허리와 다리를 다친 내가 앉으려했으나 어떤 여자가 앉아버리길래 다쳐서 앉어도 되냐고 물어봤지만 자기는 여자고 다쳐도 남자니깐 자기가 앉는다고 했다.

D (남, 17) 어렸을때 고추가 크다느니 작다느니 코가커서 고추가 클거라는등 그런것들또는 남자가 쪼잔하면안되지 이런것 등등

E (남, 18) 남자라서 신체적 터치같은 부분이 더 개방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 군대에 대해서 잦은 언급과 이를 (장난은 장난으로 받아드리지만) 장난삼아 얘기하는 부분. - 같은 이유로 여성의 경우, 임신이라는 주제로 장난을 칠 경우에는 민감한 반응이 예상됨.

F (여, 19)

—여자라서 요리를 배우게 하려고했던일

—커서 자연스레 요리가 좋아지고 잘하게되자 엄마랑 할머니가 안심했던일

—왜 제사에 남자들은 일 안하냐니까 요리를 못해서라고 하면서 배울생각도 없지만 아무도 남자들에게 같이하자고 말할 생각을 안했던일

—택시기사 아저씨가 학원간다니까 여자는 결혼만 잘하면된다고 했던일

—여자니까 방이 깨끗해야한다 다리 오므려라 라는 말을 들었던일

—학교 교복이 8세 아동복 수준에 숨막힐 정도로 옆구리에 박음질이 되어있고 안이 다 비쳐서 더워도 힌티를 입어야하며 특별한 사유없으면 바지를 입어야하는 일

위의 모든 일은 친척 오빠 남동생 친오빠 친 남동생 모두 한번도 겪어본적없고 생각도 안하지만 저는 거의 하나씩 매일 겪습니다.

G (여, 18) 여자기 때문에 게임에서 보르시 보크리 보전깨 보확짖 소리를 듣거나 닉네임이 여자같다는 이유로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여자답지 못하게 왜 그러냐는 말은 일상이라서 이제 무덤덤하구요.

H (남, 19) 남자는 이런거쯤은~ 남자면~ 이런 말을 들을때마다 기분이 좋지않았다

I (여, 19) 체육 선생님께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말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J (여, 17) 내가 어느 돈까스 가게에 갔는데 남자가 시킨 돈까스에는 밥을 2덩이주는데 여자가 시킨 돈까스에는 밥을 1덩이만 준다. 그래서 내가 시킨 돈까스에도 밥이 1덩이만 나와서 그냥 먹었다.

K (남, 18) 남자라는 이유로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압박을 느낀적이 있다.

-응답자 192명 중 100명이 차별 경험을 기술했으며 여학생 78명, 남학생 22명이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차별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은 성별 별로 남학생은 35%, 여학생은 49%다.